

교회소식

-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2021년 감사주일입니다. 구주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주의 성탄을 예비하며 삶 속에서 감사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사정상 백산 접종을 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10시 예배를 잠정적으로 신설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분명한 본분입니다.
- 성탄 전야제나 성탄 감사 예배 일정과 장소는 19일 주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공동체와 선교회는 성탄 전야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각 선교회에서는 줌(Zoom)이나 핸드폰 페이스 톡으로 총회를 하고 이번 주까지 임원 선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연임도 가능).
- 주소나, 전화번호, 기타 변경된 사항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요람 준비).
-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각 가정에 성탄 축하 장식한 것을 찍어서 공동 체장들에게 보내주시면 성탄 전야제나 성탄 예배 때 함께 보겠습니다.
- 2022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벽걸이 2부, 탁상용 2부씩 각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이선주 집사 가정 제공).
- 성전 이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 Broadway Newmarket 건물은 새로운 조건이 생겨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 성전 이전 문제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 당회와 안수집사들에게 지혜와 믿음이 더해지도록.
- 예배 후에 교회 기구와 물품들을 벽돌 교회당으로 옮기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점심으로 김밥 제공은 김창조, 김명옥 집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배 후 4남선교회실에서 은퇴 장로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December

교회사역일지

12월 5일(주일) 대림절 2
12월 12일(주일) 감사 주일
12월 25일(토) 성탄 예배
12월 26일(주일) 송년 주일

기도순서

12월 19일 (주일) 손조훈 집사
12월 22일 (수) 가정 예배
12월 26일 (주일) 이정인 집사
12월 29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정인,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감사주일

23권 50호 2021.12.12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5:7,11	인도자
찬송	Hymn	64장	다함께
찬회의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80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사무엘하 9:1-13	인도자
찬양대찬양	Choir	논밭에 오곡백과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Sermon	감사의 시작	이태한 목사
특송	Special Hymn		1,2 남녀 선교회
찬송	Hymn	305장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응답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프리카 선교 동역자들에게

2021년을 시작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 놓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Covid 19의 위협과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사역의 현장을 지키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과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영광과 감사, 존귀를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동역자님들께 올려 드립니다.

물론 주님께서 선교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지만 선교사 주변에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비와 쓸 것을 따로 떼어 보내 주시는 그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며 그런 격려와 응원이 20년이 흐른 지금의 선교사를 선교사 되게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아직도 저는 죽어가는 영혼 구원에 목말라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함으로 이 사랑의 빛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 빛을 갖는 것이라 생각하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다 보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후손들과 사업체를 돌아보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실 줄로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온 세계가 다시금 고통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11월이면 사실상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남아공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는 매일같이 오르고 가진 자들이야 별문제가 아니지만 열악한 흑인촌은 더 어려워지고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약간의 휴식을 가지면서 내년을 구상하며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기도와 후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기도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가 영육으로 강건하여 사역의 어려움이 없도록.
2. 현지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임태원 집사
성경	봉독	Scripture	베드로전서 2:11-12
설	교	Sermon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430장
주	기도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12월 5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마태복음25:14-15, 24-30

1달란트는 당시 근로자의 16년 치 연봉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큰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맡겼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산 다섯, 두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21, 23). 그러나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며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24-25).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잘못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합니다.

1)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잘못(18): 이 종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하며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재능의 적음을 책망하지 않고 각각의 재능과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준 것인데(15) 자신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잠 16:18)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고전 4:7).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은 없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기 관점으로 주인을 평가한 잘못(24): 주인을 투자하지 않은 데서 수익을 거두려 하며 손실을 징계하는 분으로 알았다면 주인을 모르는 말입니다(26). 하나님을 내 경험의 틀에 가두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아로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출 20:4). 자기가 만든 우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생명, 시간, 건강, 재정 그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내 삶의 대장도 예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것에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삶의 많은 고민이 해결됩니다. 피조물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3)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잘못(19):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으며 주인까지 묻어 버린 듯 이 종은 주인이 오건 말건 상관없이 결산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주인을 너무 모른 것입니다. 2천 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계 16:15). 구원주로 오셨던 초림과는 달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은 결산입니다. 결산일에 칭찬받은 자들은 성과의 크기가 아닌 은혜로 받은 것에 감사하며 충성되어 산 그 삶으로 칭찬받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은 사명을 다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징조로 가득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 것을(롬 13:11) 기억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되어 사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코로나19로 어수선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2.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